

## 북한 유일 지배 체제 형성과 교육의 역학 관계\*

김서경\*\*

본 연구는 1967년 전후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 형성 과정에서 정치와 교육의 역학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967년 이전 시기에는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 실현을 목표로 이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존재를 '우리'로, 이들이 투쟁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적'으로 경계 짓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했다. 하지만 1967년 이후 시기부터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 형성으로 국가 목표가 변화하면서 김일성에 충성하는 인민들만이 '우리'로 구성되며,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적 서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 정체성을 변화시켰다. 변화한 국가 정체성은 교과서 서술에 그대로 반영되어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 정서를 형성해 갈등 문화를 강화했다. 즉, 유일 지배 체제를 위해 변화한 국가 정체성은 교육에 반영되었고 교육은 갈등 문화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주제어: 1967년,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국어 교과서, 사회 교과서, 국가 정체성, 갈등 문화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 유일 지배 체제 형성과 교육의 변화: 1956~1975년 출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2024)의 제3장~제5장의 핵심 논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신천초등학교 교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 1. 서론

공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에 의해 정해진 내용을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생기기 이전의 시기부터 주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유일 지배 체제인 국가의 경우 교육은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활용되며 공교육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이나 판단력은 이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한다. 1967년 제4기 제15차 당 대회에서 이루어진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수립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연구들은 많으나 연구 자료의 한계, 명확한 교육 담론의 부재 등의 이유로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sup>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큰 정치적 변동성이 있었던 1967년을 기점으로 보이는 교육의 변화 및 교육이 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

1)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1977년 사회주의 교육체제가 완성된 시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이 외의 시기로는 해방 직후와 관련된 연구 정도가 활발하다. 해방 직후 시기나 1977년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완성된 이후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의 교육,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의 경우 북한의 교육 담론은 명확한 편이다. 이에 비해 정치적 역동성으로 인해 유일 지배 체제가 공고히 되기 이전 시기인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의 시기는 교육의 목표가 변화하는 시점이었고 교육 담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서 명확한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육과 관련한 유일 지배 체제 분기점을 1967년, 1977년으로 해석한 각각의 선행 연구가 있어 이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1967년을 기점으로 교육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 분석도 교육 제도의 변화 혹은 학생 수, 과목 비중의 변화 등 거시적인 측면의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1967년 이전 교과서				1967년 이후 교과서			
	학교/학년	과목	출판사, 발행일		학교/학년	과목	출판사, 발행일
1	중급/2	국어	학우서방, 1964	1	중급/1	국어	학우서방, 1970
2	중급/3	국어	학우서방, 1964	2	사범대학 예비과용	국어	학우서방, 1969
3	성인·청년· 중·고 편입	국어	학우서방, 1960	3	초급/5	사회	학우서방, 1970
4	고급/2	조선력사	학우서방, 1964	4	중급/2	사회	학우서방, 1971
5	고급/2·3	조선력사	학우서방, 1967	5	중급/3	조선력사	학우서방, 1970
6	조청반용	조선력사	학우서방, 1964	6	중급/2	김일성원수 혁명활동	학우서방, 1975

\* 교과서에 표기된 학제는 총련의 학제에 따른 교과서이기 때문에 중학교 대신 초급학교, 중급학교, 고급학교로 표시하고 있다. 고등 교육에 가까워질수록 교과서에서 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교육의 방향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예비 교원들, 조청반, 중·고 편입 및 청년·성인 반 학교 교재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유아, 인민학교 저학년 교과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내용을 풍부하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했다. 또한 중, 고등 및 성인 교육의 교과서는 학년에 따라 다루는 내용들에 차이가 있어 항일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을 다루는 교과서만을 선정했다.

본 연구는 1967년을 전후 교과서들의 목차, 목차 내의 각 장의 제목 및 절의 제목 양상, 활용되는 단어 및 빈도수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특징을 추출했고 교육 정책, 김일성의 연설문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sup>2)</sup> 분석 대상으로는 항일무장투쟁 및 조국해방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한 국어, 사회/역사를 선정했다.<sup>3)</sup>

- 2)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선행 연구의 시기 구분과 정치, 교육 정책적 변화를 참고하여 1956년부터 1967년, 1968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로 구분했다. 본 연구는 1967년을 기점으로 한두 개의 시기만을 상대적인 비교하여 분석했다.
- 3) 선행 연구에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 시기가 적과 우리로 나누어 적에 대항해 투쟁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북한이 목표했던 국가의 모습, 인민의 모습을 부각해 김일성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주제라고 주장한다. 김재용,

국어과는 과목 중 가장 많은 예시 글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제재 글을 다룰 수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을 서술하는 양상 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 국가 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회/역사 교과서는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교과로 항일무장투쟁 시기, 조국해방전쟁 시기와 같이 북한의 정치적인 해계모니 경쟁과 긴밀히 얽혀 있는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발행된 교과서 중 1957년부터 1970년 초까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항일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 내용을 다룬 교과서는 구할 수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표 1>와 같이 총련 학우 서방의 교과서를 북한의 교육 대상으로 상정했다.<sup>4)</sup>

---

“북한의 역사 교육체계 확립과 민족해방운동사 인식,” 『사총』, 제102권(2021); 조수룡, “경합하는 ‘혁명전통’: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와 재구축,” 『사학연구』, 제137호(2020); 차승주, “남북한 교과서의 ‘한국전쟁’ 관련 내용 비교 연구,” 『북한학연구』, 제7권 2호(2011); 하광민,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수령의 형상과 속성연구,” 『통일전략』, 제20권 2호(2020).

4) 조선 총련과 북한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조선 총련이 북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진희관, 김동규, 문미라 등은 조선 총련 단체(이후 조총련으로 명명)가 친북적 성향을 가진 사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북한 또한 재외교포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연구했다. 북한과 총련의 연계성은 『로동신문』에서도 1957년에 결성된 총련의 10주기, 20주기를 기념하며 총련에 대해 강조하는 등의 특징으로 잘 드러난다. 권성아, 박찬홍, 심희찬 등 총련의 교과서로 북한 연구를 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도 조선 총련과 북한 교과서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위와 같은 북한정부와 총련의 연계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총련교육도서출판사 교과서가 북한의 교육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성아,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통일과 평화

## 2. 1967년 전후 북한 교육 정책 비교: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에서 지배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화

### 1) 1967년 이전 북한 교육 정책: 교육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

1958년 11월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단축하여 완수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5)</sup> 또한 사상 교육의 또 다른 목표가 경제개발을 위한 생산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생산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sup>6)</sup> <표 2>와 같이 정리된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교

---

』, 제3집 2호(2011); 박찬홍, “『조선력사』(상)(1963) 교과서의 대외관계사 서술 검토,” 『백산학보』, 제119호(2021); 심희찬, “박시형의 역사관과 발해사 연구에 대해,” 『역사와 교육』, 제34집(2022); 김인덕, “쟁점논단: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역사교재 서술체계에 대한 소고: 『조선력사』(고급3)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학회』, 제14권(2008); 김광식, “재일조선인의 옛이야기 그림책의 활용: 학우서방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75집(2021); 윤송아, “총련 결성과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박종상의 『봄비』와 량우직의 『서곡』에 나타난 총련 결성 시기 ‘조선학교’의 재현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57권(2019).

- 5) “반드시 학교를 나와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한시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단히 발전하는 것만큼 동무들은 항상 새 과학을 배우며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기술의 습득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다.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년 11월 20일,”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139-141쪽.
- 6)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할 것,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반대할 것,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것,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표 2〉 1956~1962년 교육체제

연도	학제	교육 특징
1956년		일반교육의 확대
1958년	인민학교(4년) - 초급중학교(3년)	기술 중심 교육 정책
1959년	- 고급중학교/ 기술전문학교 <sup>1)</sup>	강화된 기술 중심 교육 정책 1) 『공작』, 『실습』, 『생산기본』 과목의 추가 <sup>2)</sup> 2) 기술전문학교의 학생 수 > 고급중학교의 학생 수 <sup>3)</sup>
1962년	인민학교(4년) - 중학교(3년) - 기술학교(2년) - 고등기술학교(2년)	학교 및 학생 수의 증가 1) 1960년: 고급중학교 195개, 전문학교 132개 → 1962년: 기술학교 855개, 고등기술학교 82개 → 1963년: 기술학교 1,218개, 고등기술학교 466개 2) 1958년까지 중등교육 기관에 다니는 수가 약 13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학제 개혁 후에는 약 47만 명으로 증가 <sup>4)</sup>

주: 1) 고급중학교에서는 기술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일반지식 교육 과목 시수가 92.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서는 기술 교과의 비중이 53.6%, 일반지식 교육 과목 비중이 46.4%이다. 북한은 1958년 이후 본격적으로 기술 의무 교육이 실시되면서 파격적으로 기술학교들이 늘어났고 기술학교 교수 과목의 비중의 반 이상을 기술 교과로 배치하며 학교의 교육 내용 자체도 기술에 치중되어 있게 구성했다. 김옥자, “북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1960년대 후반 기술교육 중심에서 유일사상교육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 (2015), 72쪽.

2) 강근조, 『조선교육사』, 제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81쪽.

3) 1958년까지만 해도 고급 중학교 학생은 약 8만 명, 전문학교는 약 4만 8천 명으로 2배에 가까운 학생 수 차이를 보이며 일반 지식 중심의 교육을 받았던 것과 달리 1959년부터는 기술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고급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를 넘게 된다.

4) 1967년까지 기술학교는 1,297개, 고등기술학교는 467개가 설립된다. 1958년까지 중등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고급중학교, 전문학교였고 학제 개혁 후 중등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는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였다. 서울 속의 중등교육 기관을 이를 근거로 각 학교의 다니는 재학생들의 수를 합쳐 서술했다. 이향규,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경기: 교육과학사, 2010), 117~118쪽.

육 제도의 형태는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김일성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을 기를 것, 근로자들은 혁명적 사상으로 교양할 것이 담화문에서 주장하는 사상 교육의 중점 내용이다. 위의 책, 131~138쪽.

이 시기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 관련 학교 수를 증가시키고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인민들을 적극 독려했다. 기술학교를 도 소재지와 노동자구에 설치해 노동자, 사무원 자녀들을 입학시켜 기술자로 양성시키려 했으며 기술 중심의 교육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교원들을 재교육했고, 현직 기술자들 중 일부를 기술교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sup>7)</sup> 196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고급중학교는 추상적 지식을 배워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1962년부터 학제에서 사라진다. 동시에 전문학교였던 사범전문학교, 기술전문학교가 폐지되고 2년제 기술학교와 2년제 고등기술학교가 생기며 기술학교 및 재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 교육뿐 아니라 고등 기술 교육까지 강조하게 된다.<sup>8)</sup>

19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술 중심의 교육 기조를 바탕으로 사상교육과 일반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다.<sup>9)</sup> 1962년에 발표된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는 교원의 재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사상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

7) 김옥자, “북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1960년대 후반 기술교육 중심에서 유일사상교육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 76쪽.

8) 강근조, 『조선교육사』 제4권, 175쪽.

9) 1961년에 발표한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연설문에서는 “우리는 그전 사회에서와는 달리 새로운 교육 방침과 방법에 의해 새 사회의 인간을 교양해내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사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일성,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4월 25일,”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75-76쪽.

조된다.<sup>10)</sup> 1963년 9월 『공산주의도덕』 과목이 추가된 것도 교육 제도의 측면에서도 사상 교육을 강조하는 김일성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도 여전히 기술 중심의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 2) 1967년 이후 북한 교육 정책: 일반 지식 교육 및 사상 교육의 강조

1967년부터는 기존의 중등 단계의 기술학교를 없애고 한시적으로 중학교와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 중학교를 신설한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가 실시된다.<sup>11)</sup> 『조선중앙연감』에서는 중학교를 중등 일반 지식 교육과 기초기술 교육을 모두 다룬 의무 교육 기관으로 정의하며 새로 신설된 고등학교의 성격은 “전문기술교육 대신에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학교라고 표현한다.<sup>12)</sup> 두 학교 모두 기술교육의 성격이 ‘기초적인 것으로 명시되었다는 점, 일반지식 교육과 기초기술 교

---

10) 이 연설에서는 “현직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성단련을 더욱 강화하고 당적사상체계, 공산주의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교원들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교원들의 사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당 조직과 민청 조직들에서 훌륭한 인재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 사범 교육 체계를 제대로 갖출 것,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학교 수를 늘릴 것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높은 자질의 교원을 배출할 것을 요구한다. 현직 교원들 또한 재교육을 통해 정치 사상적으로 단련되어야 하며 지식수준을 높일 것을 약속 중학교의 사례까지 첨부해 강조한다. 김일성,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266쪽.

11)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는 인민학교(4년)- 중학교(5년)- 고등기술학교(3~4)년의 학제이다.

12)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6~1967), 228쪽.



〈표 3〉 1967년 이후 사상 교육과 관련한 변화점

변화점	변화 내용
교육과정의 변화	1) 교육강령에 당 정책을 매 수업 시간 제일 앞부분에서 다뤄야 함을 명시함. 2) 김일성의 노작과 혁명 전통 수업 시간을 늘림. 3) 교육과정에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의 암기가 필수로 추가됨.
추가 과목 개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과목이 추가됨. 2) 교수에 이용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정책사』 발간함. 3) 1963년 추가된 『공산주의도덕』의 재집필함.
학교 시설의 추가	학교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이 만들어짐.
혁명학원) <sup>1)</sup> 학제, 과정안 개편	1) 정치 과목, 당 건설 과목 시간이 증가함. 2) 정치활동가로 키우는 내용을 담은 『사회정치활동』 과목이 추가됨.
담화문 내 서술 변화	1) 사상 교육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2)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함. 3) 사상 교육이 학교에서 제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을 이전보다 강조함. <sup>2)</sup> 4) 교원의 혁명화를 더욱 강조함. <sup>3)</sup>

주: 1) 혁명학원은 혁명가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대를 잇는 혁명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당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고 산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1968년 표와 같이 학제, 과정안을 개편하면서 사회 정치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2.3%에 달하게 되었고, 이는 김일성에 충성하는 측근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강근조, 『조선교육사』, 제4권, 365~371쪽.

2) 1968년 연설문에서는 “사람들은 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교양되며 따라서 중요하게는 교육기관들과 당조직들 및 근로단체들이 당의 로선과 혁명사상에 근거하여 사상혁명을 수행합니다”라고 표현한 데 비해 1973년 연설문에서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요양에서 물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학교교육이며 학교교육의 성과는 전적으로 교원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라고 표현한다. 즉, 1968년에는 사상 교육이 있어 학교, 사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표현했으나 1973년에는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면서 학교 교육을 가장 강조한 것이다.

3) 1968년, 1972년 연설문에 걸치면서 교원 혁명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나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인테리들은 로동계급과 같이 집단적인 생산로동을 통하여 단련되지 못하므로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로동계급의 사상이 부족합니다” 등의 서술을 통해 인테리 교원의 혁명화 근거를 추가한다. 더불어 교원을 ‘지식 전달자’,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당에 충실하여 김일성의 의도한 바를 잘 관철시킬수 있는자”로 정의한 것은 당시 당의 의도를 잘 반영하는 서술이다. 김일성,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전국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2월 27일,” 『김일성전집』 제4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93~98쪽.

자료: 김옥자, “북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1960년대 후반 기술교육 중심에서 유일사상교육으로,” 72쪽; 강근조, 『조선교육사』, 제4권, 230~238쪽을 재구성.

육을 배합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전보다 일반 지식 교육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2년 11년제 의무교육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기술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지고 6년제의 고등중학교, 고등중학교 졸업 후 대학 혹은 고등기술학교를 선택하는 학제로 변화하였다.<sup>13)</sup> 일반지식 교육과 더불어 김일성은 담화문에서 이전과는 다른 서술들로 사상 교육을 강조했고 이는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 시설의 추가, 새로운 과목의 증설 등에 반영되었다.

1967년 이후 사상 교육이 이전에 비해 강조된 것뿐만 아니라 초점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근거로 첫째, 『공산주의도덕』을 재집필한 것을 들 수 있다. 1963년도에 사상 교육을 위해 추가된 『공산주의도덕』 과목은 1968년 김일성의 주도하에 재집필되었다. 사상 교육을 위해 집필한 교과서를 5년 만에 김일성이 직접 참여해 내용을 다시 작성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내용을 넣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작성된 『공산주의도덕』은 1968년 9월부터 적용되어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평가된다.<sup>14)</sup>

둘째, 1967년 이전 사상 교육은 낡은 사상에 투쟁하는 것이었다면 1967년 이후에는 낡은 사상 자체를 빼야 한다고 서술한다. 1968년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는 연설문에서 김일성은 혁명가들을 이순신과 같은 조선시대 이전의 위인들보다 높은 위상에 있다고 재위치시키며 옛날의 책에서 강조했던 내

13) 11년제 의무교육제는 취학전교육 - 인민학교(4년) - 고등중학교(6년) - 대학교(4~5년)의 학제이다.

14) 강근조, 『조선교육사』 제4권, 237~238쪽.

용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공산주의교양에 맞게 해석”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1967년 이전에는 없었던 교과서의 내용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실제로 교과서 내용이 김일성과 함께 활동한 혁명가들의 내용 위주로 작성된다.

셋째,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맑스-레닌주의 사상 그대로가 아닌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의 사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맑스(Mark), 엥겔스(Engels), 레닌(Lenin) 등 기존의 고전들의 한계점을 언급하는 특징을 보이며 북한만의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한다.<sup>16)</sup>

### 3. 1967년 전후 북한 교육 내용 비교: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에서 김일성 개인으로의 초점 변화

#### 1) ‘우리’로 상정하는 인민 범위 및 서술의 변화

1967년 이전 시기 교과서에서 우리로 상정되는 범위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 사람이었다. 이상적인 사회주의

---

15)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교육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8년 3월 14일,”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319~322쪽.

16) 김일성,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제48권, 68~71쪽.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존재는 북한 인민뿐만 아니라 남한 인민까지도 모두 우리로 포함시켰다. 3.1 운동의 서술을 통해 서울에서의 항일운동 및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언급, 김일성의 본격적인 업적이 드러나기 전인 1920년대 항일운동의 서술, 조국해방전쟁 시기 남한 인민들의 투쟁을 자세하게 다룬다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된다.<sup>17)</sup>

그러나 1967년 이후 교과서에서 우리로 상징하는 존재는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북한 인민으로만 그 범위가 좁혀진다. 남한 인민들이더라도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투쟁했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었던 1967년 이전 교과서와 달리 3.1 운동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서술, 민족주의자들의 행동에 대한 서술, 조국해방전쟁 전과 발발 중의 남한 인민의 투쟁 및 북한 군대를 돕는 남한 인민의 서술은 일절 보이지 않는다. 또한 1910년대, 1920년대 조선 공산당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다뤘던 특징 또한 거의 사라진다.

---

17) 1967년 이전 교과서에서는 3.1 운동의 시작을 서울이라고 명시하고 민족주의 세력의 실패를 서술하나 이들에 대한 언급한 것, 남북한 지역 구분 없이 '조선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여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투쟁했다는 표현, 조선 공산당의 6.10 만세 시위 및 1928년까지의 여러 투쟁에 대해 상세한 서술과 강조 및 여러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다룬 것, 조국해방전쟁 전 남한 노동계급이 미군 주둔에 반대한 투쟁 및 노동자 총파업, 유격 투쟁에 대한 구체적 서술, 조국해방전쟁 중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맞서 싸운 북한을 도와준 서울 시민 및 1951년 11월 인천과 부산 노동 투쟁, 1952년 농민과 청년 투쟁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조청반용』(동경: 학우서방, 1964);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고급 학교 제 2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64);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고급 학교 제2·3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67).

## 2) 김일성에 대한 서술 변화

1967년을 기점으로 교과서상에서 김일성에 관한 서술 내용과 비중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생긴다. 1967년 이전 국어 교과서에서 김일성을 다룬 글은 평균적으로 12%였으나 1967년 이후에는 49%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사범대학 예비과용 국어 교과서에서는 69%나 차지했다. 사회/역사 교과서도 1967년 이전에는 김일성을 주되게 서술한 비중이 항일무장투쟁 시기는 약 44%,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는 약 13%였다면 1967년 이후에는 모든 항일무장투쟁 시기,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서술에서 김일성을 다룬다.

김일성에 대한 서술 내용도 그가 절대적으로 옳은 지침을 내리는 존재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첫째, 김일성을 제외한 다른 항일 유격대원들이나 역사적 위인들에 관한 서술이 사라졌다. 1967년 이전 역사 교과서에서는 1930년대, 1940년대 활동한 김일성 외의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실명과 업적이 거론되었다.<sup>18)</sup> 하지만 1967년 이후 역사 교과서에 이들의 대한 내용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김일성이 지도한 것, 김일성이 이끄는 부대들만 다룬다.

둘째, 1967년 이후부터 김일성 부모님의 업적을 강조하는 서술이 추가되었다. 김형직이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다 정도의 간단한 언급

---

18) “왕청현에서는 량 성룡, 리 광, 김 철, 최 춘국 등 동지들, 연길현에서는 박 동근, 박 길, 최 현, 류 경수 동지들, 훈춘현에서는 강 석환, 안 길, 리 국진, 리봉수 동지들, 화룡현에서는 허 은섭, 차 용덕, 박 영순 등 동지들이 활동하였다.” 최 현, 김일이 이끈 소부대를 이끌었다는 서술 등 김일성을 제외한 유격대원의 실명이 다수 등장한다. 총련중앙교육부, 『조선 력사: 고급 학교 제 2학년용』, 128-183쪽.

을 하는 수준에서 김형직, 강반석과 관련된 서술을 한 단원으로 상세하게 다룬다.<sup>19)</sup> 서술 비중 측면에서도 1967년 이전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나 1967년 이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글의 비중이 약 24%를 넘는다. 즉, 김일성 부모님의 항일 업적을 부각함으로써 김일성은 다른 인민들과 다르게 특별히 투쟁 정신이 강한 것이 혈통적으로 혁명정신을 물려받았다는 논리를 펼친다.

셋째, 청소년 시기 김일성의 항일 혁명 업적을 이전에 비해 강조했다. 1967년 이전 교과서에서는 1930년대 이후부터 김일성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1967년 이후에는 김일성의 학생 시절이었던 1920년대 항일운동부터 상세하게 서술한다.<sup>20)</sup> 눈에 띄는 변화는 1967년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현대사의 시작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에서 1926년 10월 16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sup>21)</sup> 이 날짜는 1920년대 김일성의 공

---

19) 초급 5학년 역사 교과서에서는 김형직이 조직한 '조선국민회에 대한 서술이 자세하게 나오고 이 조직에 대해 "조선국민회는 3·1운동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반일혁명조직이었습니다"라는 평가까지 덧붙여 있다.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초급학교 제 5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70), 97~101쪽.

20) 1967년 이전 교과서에서 1920년대 김일성의 업적과 관련한 서술은 1926년 길림 육문 중학교에서 맑스-레닌 사상을 깊이 연구했고 '길림 조선인 류학생회', '조선인 소년회를 조직했으며, 1931년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내용만 나온다. 이에 비해 1967년 이후 교과서에서는 1926년 '트, 디'라고도 불리는 '새날소년동맹'의 조직,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류길학우회', '반제천년동맹'의 지도, 1927년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조직의 내용이 추가된다. 1967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단체를 책임, 지도했다는 표현, 민주주의 세력이 이끌었던 단체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시 교화시키는 모습, 1931년 공산당에 들어가 활동한 것이 아니라 직접 조선혁명군을 조직해 전투에 직접 참여했다는 모습 등의 서술을 통해 1920년대 김일성의 항일 혁명 투쟁이 훨씬 강조된다.

21) 1968년 발간된 백봉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책에서 1920년대 후반 김일성

식적인 활동인 ‘ㄷ’의 성립 일로서 현대사의 기준을 광복절에서 이 날짜로 변경한 것은 ‘ㄷ’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를 성립한 김일성 자체를 영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시절부터 김일성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부각한 것은 김일성이 혈통을 통해 혁명정신을 계승받았기 때문이라는 앞선 서술과 연계된다.

마지막으로 김일성을 일본 미국에 대항하여 투쟁한 애국자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영도를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정의한다. 일제와 대항해 열심히 투쟁한 애국자의 모습으로 묘사됐던 모습에서 “수령님께선 살아도 죽음같던 그 모진 세상을 송두리채 쓸어내주시었습니다”, “수령님의 해빛아래서 나라의 주인들로 되었습니다” 등과 같은 표현들을 옳은 영도를 통해 인민을 구원한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sup>22)</sup>

### 3) 종파분자의 서술 변화

1967년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종파분에 대한 적 서술이 더 강해졌다. 1958년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연설문에서는 국내 종파 분자들을 “종파 분자”, “박헌영 일파”, “최창익을 괴수로 하는 엠엘파” 등으로

---

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1926년 10월 17일 만주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다는 사실이 처음 등장했고, 이후 『조선전사』를 발간하며 현대사의 기준이 이 조직의 결성 날짜로 설정되었다. 정창현, “北혁명전통의 뿌리 동북항일연군 1960년대 후반 현대사 기점 변화,” 『민족21』, 제147호(2013), 32~33쪽.

22) 총련중앙교육부, 『국어 독본: 성인학교, 청년학교, 중·고 편입생용』(동경: 학우서방, 1960), 65~66쪽; 총련중앙교육부, 『국어: 사범대학 예비과용』(동경: 학우서방, 1969), 58~61쪽.

명명하는 데 비해 1968년 연설문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에서는 이들을 “나쁜 놈”, “그놈들”이라고 이들을 명명하고 교과서상에서도 이들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서술한다.<sup>23)</sup> 또한 1967년 이전 교과서에서 보이는 종파분자의 분열 책동에 대해 정확한 투쟁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직”, “가장” 등의 단어 사용을 추가해 김일성의 영도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인민을 구원하는 모습으로까지 묘사한다.<sup>24)</sup>

#### 4) 소련 및 중국의 서술 변화

1967년 이전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의 모습은 중

---

23)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선집』 제6권;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24) “바로 이러한 때에 오직 김일성원수님께서만이 朝鮮革命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나아가심으로써 모든 애국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으시였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은 나라를 건설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리다툼에만 눈이 어두워 옥신각신 세월을 보내고있었고 종파분자들 역시 자기 파를 내세우면서 패싸움을 일삼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직 김일성원수님께서만이 朝鮮革命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나아가심으로써 모든 애국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으시였다”, “조선인민은 강도 일제의 탄압을 무찌르고 종파분자들의 분열파괴책동을 극복하고 혁명을 勝利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의 앞장에 나서시였습니다” 등 이전에 비해 김일성의 구원자적 면모를 강조한다. 총련중앙교육부, 『사회: 중급학교 제 2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71), 11~90쪽; 총련중앙교육부, 『조선 역사: 초급학교 제 5학년용』, 111~112쪽.



국, 소련과 함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당시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상인 소련과 같은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sup>25)</sup> 1955년에 발표된 “사상사업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여겨 소련,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sup>26)</sup>

인민 투쟁의 시작으로 의의가 있는 3.1 운동의 유래를 소련의 10월 항쟁에서부터 찾은 것, 국가 형태의 시초로 상정한 유격-근거지의 형태가 소련의 형태를 보인다는 소련의 투쟁 정신을 반영했다고 표현하는 것, 조선 해방의 주체에 있어 소련의 영향력을 김일성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서술한 것, 소련의 투쟁에 대해 “영웅적”, “위대한 공산주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부각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sup>27)</sup> 중국과 관해서도 중국 군인의 개인 일화를 국어 제시 글로 활용하며 투쟁 중에 전사한 이들의 모습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거나 1933년 첫 조중 공동 작전인 동녕현성 전투에 대한 서술, 1934년 라자구 진공 전투

---

25) 물론 1967년 이전 시기는 1956년 이전 시기 교과서에 비해서 소련에 관한 서술과 영향력을 인정하는 서술의 비중이 줄었고 그 양상도 많이 약화했으나 1967년 이전까지의 교과서 서술에는 여전히 소련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며 북한은 소련의 투쟁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기조로 서술된다.

26)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27) 1967년 이전 사회/역사 교과서에서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 식민지 해방의 시작이었다고 서술한다. 함흥, 원산을 시작으로 조선의 지역을 해방시킨 주체를 모두 소련이라고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는 소련이 진격한 이후 전투에 참가했다고 표현한다.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조청반용』, 120~121쪽.

에서 중국인 반일 부대와 함께 투쟁한 내용, 1935년 국제 공산당과의 연계, 중국 유격대들과 협동하여 싸웠다는 서술 등을 통해 중국과 협력하여 투쟁한 서술도 다수 등장한다.<sup>28)</sup> 소련, 중국이 제국주의에 투쟁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일제와 미국에 대항하여 함께 전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같은 사회주의국가라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1967년 이후 교과서에서는 소련의 사회주의국가상을 목표로 하여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했던 서술은 완전히 사라졌다. 인민 투쟁 및 북한 국가 형태의 시초로 상정했던 3.1 운동과 유격-근거지에 대한 서술 비중을 줄이고 이들에 큰 영향을 주었던 소련의 내용은 모두 빠졌다. 이는 당시 사회주의 대표 국가였던 소련에 의지하지 않고 북한만의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를 만들겠다는 김일성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을 중국보다 더 우위에 위치시키며 중국을 교화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1967년 이전에는 중국은 북한과 함께 협력하여 투쟁한 존재이며 오히려 북한이 중국에 도움을 받았다고 서술했다면 1967년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의 투쟁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서술로 변화하였다. 일제 강점기 당시 김일성이 중국 군인들을 교화하거나 가르쳤다는 일화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조국해방 전쟁에서도 중국이 전쟁에 참여해 많은 희생을 했고 중국과 형제적 관

---

28) 『국어 독본』에서는 ‘중국 인민 지원군 라 성교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북한 어린이를 구하다 죽은 중국 군인에 대한 존경을 담은 내용이 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역사 교과서에서도 1931년부터 김일성 지휘 아래 중국 청년들은 조선 인민들과 함께 무장 부대를 조직해 동녕현성 전투를 시작으로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중국과 조선이 함께 공동 투쟁했다고 서술한다. 총련중앙교육부, 『국어 독본: 성인학교, 청년학교, 중·고 편입생용』;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초·중·고 편입생용』; 총련중앙교육부, 『조선 력사: 고급 학교 제 2학년용』.

계를 맺었다고 표현했던 1967년 이전 시기와 달리 1967년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 준 내용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sup>29)</sup>

## 5) 미국 및 일본의 서술 변화

1967년을 기점으로 소련, 중국을 우리에서 배제하고 교화의 대상으로 변화시켰다면 미국, 일본은 기존보다 강한 적 서술을 하는 변화를 보인다. 첫째, 1967년 이전에 비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 증가했고 북한 인민들에게 저지른 학살 사건들을 더 상세하게 서술한다. 예를 들면 신천 학살 사건의 사망자 수 정도만 거론했던 것에서 신천 학살을 직접 경험했던 인민의 경험담을 제재 글을 활용하거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게 당한 착취, 학살당한 내용들을 한 절로 다루는 등 이들의 잔혹성을 자세하고 잔인하게 서술한다.<sup>30)</sup> 미국과

---

29) 1929년 김일성이 길림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상황에서 김일성이 중국인 간수들에게 공산주의선전을 꾸준히 했고 결국 중국 반동 군벌들이 그에게 교화되었다는 표현한다. 1933년 동녕현성 전투와 관련한 글에서도 중국 군인들이 일제의 속임수에 넘어가 함께 투쟁해야 하는 유격대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김일성이 “정치적락후성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항일투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을 ‘설복교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김일성의 위풍당당한 태도와 중국 장군인 오의성의 복종하는 태도를 상반되게 표현함으로써 김일성이 중국 군인의 대장인 오의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총련중앙교육부, 『사회: 중급학교 제 2학년용』, 20~95쪽.

30) 예를 들면, 중급 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하의 서른여섯해”라는 장을 통해 7장에 걸쳐 일제의 착취와 학살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며 그 잔혹성을 잘 표현한다. 1967년 이전에는 일제의 착취에 대항하여 노동, 농민 계급들이 투쟁했다는 정도의 서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일본에 대한 적 서술을 더 강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책, 145~146쪽.

관련해서도 국어 교과서에서 미국과 관련해 문학작품에서 묘사할 때 “가장 포악하고, 가장 추악한” 속성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김일성 교시를 언급하는 것, 신천 학살 사건 혹은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국의 학살 사건 등을 제재 글로 활용하는 것, 전쟁 중에 미국이 반동 정권을 만들어 반동 테러를 조장했다는 서술 등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적 서술이 강해졌다.<sup>31)</sup>

둘째, 미국의 지배에서 남한 인민을 구원해야 한다는 기존의 통일 이유에 일본의 재침을 막아야 한다는 것까지 추가했다.<sup>32)</sup> 미국의 학살에 고통받는 남한 인민들의 실상을 이전보다 더 상세하게 서술해 적 서술을 강화해 통일에 정당성을 더했다. 또한 일본의 재침략 가능성을 새롭게 논의하는 방식의 적 서술을 통해 통일을 위해 김일성을 중심으로 그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취한다.

셋째, 미국의 힘이 강했다는 것을 부각하는 서술을 추가해 이들을 상대로 북한이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을 자본주의 국가 중

31) 『국어: 사범대학 예비과용』에서 김일성의 교시를 추가해 1967년 이후 미국의 포악성과 야만성을 강조한다. 신천 학살 사건,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도시와 농촌에 많은 폭탄을 붓는 것도 모자라 세군폭탄을 떨어뜨린 것, 총으로 죽이는 걸 넘어서 집단으로 몰속에 넣어 죽이거나 산 채로 파묻는 행동 등 미국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민을 학살했는지 상세하게 언급한다. 미국이 미제침략자들은 점령지역에서 人民政權을 파괴하고 民族반역자들을 끌어다가 반동정권을 만들어 놓았으며 《치안대》, 《멸공단》 등 각종반동테러단체들을 만들어 저들의 앞잡이로 삼았다는 표현을 통해 미국이 반동 정권을 만들었다는 서술이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특징도 보인다. 총련중앙교육부, 『조선 력사: 중급학교 제 3학년용』 (동경: 학우서방, 1970), 38쪽.

32) 우리들은 김일성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략동을 짓부시고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총련중앙교육부, 『사회: 중급학교 제 2학년용』, 150~151쪽.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국가로 서술하고, 북한은 약한 국력과 국방력을 가진 국가로 묘사하는 내용이 추가된다.<sup>33)</sup> 이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을 통해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967년 이전에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을 “조선 인민을 정복하기 위해서”라고 ‘침략’한 것이라고만 서술한 것과 대비해 “북한을 발판으로 아세아, 나아가서 전 세계를 먹으려고 했다”라고 표현해 적 서술을 강화했다.<sup>34)</sup>

#### 4. 교육으로 재생산된 갈등 문화를 통해 공고해지는 유일 지배 체제

##### 1) 1967년을 기점으로 변화된 사회주의 사상 정의

196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주체를 위해 기반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정의를 변화시킨다. 북한에서 주체는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연설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이 연설문에서 주체는 모든 사상 사업의 중심이며 일본의 제국주의 잔재를 없애고 남한에 주둔하는 미국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싸워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인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김일성은 주체를

---

33) 위의 책, 200쪽.

34) 총련중앙교육부, 『김일성원수혁명활동: 중급학교 제 2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75), 109쪽.

옳게 수행하기 위해 주변 발전된 사회주의국가의 것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배워 이를 북한에 맞춰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1967년 이전 시기 교과서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노동 계급의 투쟁을 일제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상정하고 주요 투쟁들의 서술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언급한다. 즉, 이 시기 북한이 강조하고 싶은 사회주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sup>36)</sup>

하지만 1968년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교육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 정책’에 의거한 주체적 입장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7)</sup> 즉, 순수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아닌 이를 북한만의 것으로

---

35)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4권, 191~199쪽.

36) 1910년대 반일 독립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조선 인민에 대한 일제의 혹심한 탄압과 함께 아직 혁명적인 로동 계급이 발생기에 있었고 그들이 맑스-레닌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표현, “1920년대에 맑스-레닌주의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로동자, 농민들은 더욱 각성하여 그들의 투쟁은 계속 발전하였다”, “김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항일 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 인민의 첫 혁명적 무장대오였다” 등 맑스-레닌주의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조청반용』, 43쪽;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고급 학교 제 2학년용』, 128~132쪽.

37)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배워와도 주체적 립장에 서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여 연구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사회과학분야에 나선 기본과업입니다.”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로 새롭게 만든 당 정책을 사회주의 사상의 기반으로 하자는 것이다. 1967년 이전 시기 교과서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인민들의 투쟁은 김일성의 지침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바뀌었고 교과서 중간마다 이와 관련한 김일성의 교시가 추가됐다. 사회주의 투쟁의 시작점으로 상정했던 3.1 운동, 항일 유격대의 의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의의 등 사회주의 투쟁에 있어 중요한 사상의 기반으로 서술되던 맑스-레닌주의 사상이라는 명시적인 표현 자체도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 정책을 기존의 맑스-레닌주의 사상보다 우선시하는 방법을 통해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교육 속 국가 정체성의 변화<sup>38)</sup>

1967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다르게 정의한 것과 더불어 지향하는 국가의 목표 또한 달라졌다. 유격 근거지 및 조국 광복회, 사

---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332쪽.

38)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국가 정체성의 정의는 national identity로 앤서니 스미스(Anthony Smith)의 국가(nation)에 대한 정의의 의미를 사용했다. 앤서니 스미스가 정의하는 nation은 “역사적 영토, 공통의 신화와 역사적 기억, 대중 공공 문화, 공동 경제, 모든 집단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고유의 명칭을 가진 인간 집단”이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사용하는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는 이러한 인간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자각과 소속감으로 사용했다.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London: penguin Books, 1991); 박지광, “2022년 여론조사로 본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 『동유럽발칸연구』, 제46권 3호(2022), 185~186쪽 재인용.

〈표 4〉 1967년 전후 교과서 속 국가 정체성

시기	서술 대상	사회/역사 교과서 속 서술 특징	국가 정체성
1967년 이전	유격 근거지- 조국 광복회	1) 유격 근거지를 혁명 정권의 토대로 상정 2) 유격 근거지와 조국 광복회를 '작은 국가'로 서술 3) 근거지의 명칭, 역할, 만들어진 배경 등을 상세하게 서술 4) 조국광복회의 의의를 강조 5) 근거지-조국광복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결성 강조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
	조국해방전쟁	1) 전쟁의 전략을 주도한 주체를 '공화국 정부'로 상정 2) 사회주의국가의 우월성을 전쟁 승리의 중요한 요소로 서술	
1967년 이후	수동적인 인민의 모습	1) '혁명 임무'라는 표현의 등장 2) 추구하는 인간상이 김일성에 충실한 인민으로 변화 3) 충실성을 위해 '규율'을 강조	김일성의 지침을 기반으로 한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
	전민 무장화	1) 소년, 여성들의 투쟁 서술이 증가 2) 전민 무장화를 강조하는 서술이 등장	

회주의국가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했던 것에서 김일성 개인의 지침을 혁명 임무로 받들어 북한만의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국가 정체성이 변화한다. 〈표 4〉는 1967년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 교과서 속에서 국가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서술 대상의 특징을 정리하여 각 시기의 국가 방향성을 정리한 것이다.

1967년을 기준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국가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첫째, 유격 근거지와 조국광복회를 강조하여 이상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방식의 서술이 사라졌다. 1967년 이전에는 각 유격 근거지에 대한 명확한 명칭 사용 및 역할 및 경위 등의 상세한 서술 등을 통해 이곳이 북한의 초기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고 이상적인 사회



주의 사회라고 서술한다.<sup>39)</sup> 또한 조국광복회의 사상혁명의 기준인 10대 강령 내용을 강조하며 조국광복회를 ‘본격적인 국가 건립 이전 단계’로 묘사한다. 즉, 유격 근거지와 조국광복회가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를 계승하여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1967년 이후 교과서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둘째, 전쟁 승리의 주체를 ‘공화국 정부’에서 김일성 개인으로 변화시켰다. 1967년 이전에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된 서술에서 전쟁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여 승리한 주체를 공화국 정부로 명명하여 승리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김일성 개인의 업적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요소 중 가장 마지막인 네 번째 요소로 설명되며 이마저도 “김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김일성은 당의 대표 정도로만 위치되는 특징을 보인다.<sup>40)</sup> 이와 달리 1967년 이후 교과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김일성의 영도와 이에 충성하여 투쟁한 인민군대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오롯이 김일성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sup>41)</sup>

셋째, 추구하는 인간상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

---

39) 총련중앙교육부, 『조선 력사: 고급 학교 제 2학년용』, 131~133쪽.

40) 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고급 학교 제2·3학년용』, 180~214쪽.

41)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빛나는 승리를 거둘수 있게 한 基本要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천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다. (중략) 둘째로, 김일성 원수님께서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강철같은 人民軍隊가 있었다”[총련중앙교육부, 『조선력사: 중급학교 제 3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70), 54~55쪽].

로 희생, 투쟁하는 인민에서 김일성에 충성하는 인민으로 바뀌었다. 1967년 이전에는 김일성 개인에 관한 서술 비중보다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비중이 높아 항일 유격대원 투쟁을 상세하게 다루는 단원들이 다수 등장한다.<sup>42)</sup> 심지어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인민 개인을 영웅으로 표현하기까지도 하며 투쟁에 참여한 인민들의 실명을 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투쟁’이라고 표현하여 자발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1967년 이후에는 인민 투쟁이 김일성의 교시에 충성, 복종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강호영, 리수복 등과 같은 실제 인물들의 사례 및 여러 예시 글 등을 통해 제시하며 규율과 총화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투쟁 대신 ‘혁명임무’, ‘혁명과업’이라는 표현을 통해 김일성의 지침은 자기 생각을 넣어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할 것 등을 강조한다.<sup>43)</sup> 또한 1967년 이전 서술에 비해 무장 투쟁에 참여하는 어린이, 여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전민무장화, 전국의

42) 1967년 이전 국어 교과서에서 김일성과 관련된 항일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과 관련된 제재 글은 전체 비중의 5~6% 정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 인민들이 주인공으로 그려진 항일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 관련 제재 글은 전체 글 중 약 10~15%의 비중을 보이며 김일성의 제재 글의 비율보다 약 2, 3배 많게 다뤄진다.

43) 『사회: 중급학교 제 2학년용』의 “규율은 조직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규율과 질서는 군대의 생명입니다. 규율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과 같이 무력합니다”, “조직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은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지켰기때문에 日帝를 때려엎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었던 것이다”, “혁명임무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가지 수행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품성이다”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규율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투쟁 대신 혁명임무, 혁명과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위의 책, 74~75쪽.

요새화'라는 이름으로 전민무장화를 단독으로 다루는 장이 새롭게 추가된 특징도 보인다.<sup>44)</sup> 그리고 전민무장화에 대해서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서술하며 김일성, 북한만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의의를 덧붙인다.<sup>45)</sup>

### 3) 갈등 문화를 재생산하는 교육

1967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교육에서 우리와 적에 대한 범위와 서술, 사회주의 사상의 정의의 변화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변화시켰다.<sup>46)</sup> 1967년 이전 시기에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따라 능동적으로

---

44) 중급 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총가목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성인 리동무가 나온다. 이 이야기에서 리동무는 투쟁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닌 김일성의 성품을 부각하기 위한 요인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1967년 이후 교과서인 사회 중급학교 제 2학년용에서는 아동, 여성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다루는 제재 글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패꽃새소년유격대》, 아동단원 광춘이, 리순희 등 아동, 여성까지도 김일성에 충성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부각하며 김일성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혁명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무성을 더한다. 총련중앙교육부, 『국어: 중급 학교 제 3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64), 23~30쪽; 총련중앙교육부, 『사회: 중급학교 제 2학년용』

45) 총련중앙교육부, 『사회: 중급학교 제 2학년용』, 172쪽.

46) 다른 국가의 경우 국가 중앙뿐만 아니라 개별 출판사들에서도 교과서들이 출판되기도 하기 때문에 출판사 특성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반영되어 출판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교과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발행되고 북한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내용이 철저하게 검열되고 정제되며 교원대학교와 교사가 수업을 위해 기초하는 교수 과정안까지도 국가의 통제하에 있기에 교육에 국가 정체성이 교육에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표 5〉 갈등 이론에 근거한 북한 교육의 갈등 문화 재생산

학자	주장	1967년 이후 북한 교육의 변화점
진티스와 보울즈 (Gintis & Bowles)	가치관과 성격적 특성과 같은 정의적 내용을 통해 학교가 계급관계를 재생산한다.	항일무장투쟁 시기, 조국해방전쟁 시기와 관련해 역사적인 사실, 내용적인 부분보다 김일성에 충성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주입하는 데 초점을 둠.
알튀세르 (Althusser)	학교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이다.	1) 사상 교육의 강화를 통해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정당화했음. 2) 이데올로기 주입의 한 기구로서 학교 교육을 통해 국민이 적대감 없이 변화한 국가 지향점을 받아들이게 함.
부르디외 (Bourdieu)	학교는 지배계급의 문화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북한의 상징적 폭력인 지도자의 지배 정당성은 교육을 통해 아버지화 되어 교육을 체제 유지에 활용함.
바탈 (Bar-Tal)	고질적인 갈등의 갈등 문화(culture of conflict)는 교육 자료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sup>1)</sup>	1) 항일무장투쟁 시기, 조국해방전쟁기의 서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집단적 기억을 만들. 2) 김일성의 지침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신념을 형성함. 3) 이전과 다른 집단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집단적 정서가 이전과 달라짐.

주: 1) Bar-Tal의 고질 갈등 이론에 따르면 고질적인 갈등을 겪는 사회에서 사는 개인들은 생존을 위해 집단 전체성을 만들고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 of conflict), 사회적 신념(ethos of conflict), 집단적 정서(collective emotional orientation)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점점 진화하여 갈등 문화(culture of conflict)를 형성하게 되는데, 갈등 문화는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폭넓게 적용되며 문화 상품들과 교육 자료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갈등의 문화는 삶의 전반적인 기재로 작용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신념과 반대되는 신념이나 자료를 취사하지 않도록 하여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하게끔 작동한다.

자료: Daniel Bar Ta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Mauro Gallucci(ed.), *Handbook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2015), p. 75.

투쟁하여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이었다.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투쟁하는 존재는 남한 인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모두 우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1967년 이후 김일성은 북한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 정책에 의거한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 정체성 변화시켜 자신의 정권을 공고화하고자 했다. 기존보다 적에 대한 서술을 강화시키고 김일성의 지침에 충성하여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투쟁하는 존재로 우리의 범위를 축소시켰으며,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만이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서술 양상을 보인다.

교육학 이론 중 갈등 이론은 교육은 지배계급에 의해 선정된 지배계급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로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여 기존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강화한다고 본다.<sup>47)</sup> 갈등 이론 학자들은 공교육을 국가의 정치 지배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1967년 이후 북한 교육의 변화를 통해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의 정당성과의 상관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보울즈, 진티스, 알튀세르, 부르디외는 학교가 갈등 문화를 재생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갈등 문화는 학교 교육에 재생산된 계급관계, 기존 질서의 강화 등의 요인으로 투영되어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의도한 국가 지향점 및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 갈등 문화를 재생

---

47) 교육학 이론은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크게 기능 이론, 갈등 이론 두 가지로 나뉜다. 기능 이론은 교육이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한다는 입장, 갈등 이론은 교육이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강화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이론 중 사회적 재생산 이론 갈래로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적 재생산 이론의 대표 학자로는 보울즈(Bowles)와 진티스(Gintis), 알튀세르(Althusser), 부르디외(Bourdieu)가 있다.

산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바탈이 주장하는 갈등 문화의 요소인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적 정서의 요소로 1967년 이후 북한 교육의 변화를 통해 재생산된 갈등 문화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sup>48)</sup>

집단적 기억이란 과거의 재현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의 역사로 기억하는 것으로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화된 교과서 서술은 집단 기억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1967년 이후 교과서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김일성 부모에 대한 서술이 추가 및 강조되었고 청소년 시기의 김일성의 업적을 부각하여 새로운 서사와 신화를 구성했다. 집단 기억은 과거와 관련한 서사, 상징, 모형, 신화로 구성되며 집단의 문화적 틀이 되기 때문에 변화된 김일성에 대한 서사, 신화는 김일성의 영웅성을 강화했다. 또한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김일성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신념이 변화했다. 바탈에 따르면 사회적 신념은 자신의 정당성, 안보, 긍정적이고 집단적인 자아 이미지, 피해자화, 적을 불법화, 애국심, 통합, 평화 8가지 분야로 나타난다. 1967년 이후 교육에서는 이 특성 중 정당성, 긍정적이고 집단적인 자아 이미지, 통합을 중심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의 지침이

---

48) 바탈(Bar-Tal)은 갈등 이론을 기반으로 고질적인 갈등을 겪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연구한 학자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은 고질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로서 바탈이 주장하는 고질 갈등 이론의 특징을 보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특징들을 중심으로 북한 교육에서의 갈등 재생산을 살펴보았다.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2권 1호(2021);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서울: 통일연구원, 2018).

옳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우리의 범위에 있던 소련과 중국은 배제와 하위에 놓는 방법으로, 적의 범위에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서술은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본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집단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해 통합을 추구했다.

우리와 적에 대한 범위에 변화를 준 것은 집단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탈은 갈등 문화를 고조시키는 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집단 정서는 두려움, 증오, 분노라고 주장한다. 종파분자와 제국주의를 적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1967년 이전 교육과 공통성을 보이지만, 이들과 대비한 김일성의 우월성과 제국주의에 대한 잔혹성을 부각하며 적대심을 강화했다. 이는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고 종파분자와 제국주의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집단 정서로 이어진다.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적 정서의 요소를 통해 갈등 문화가 제도화되면 새로운 대안적인 정보의 투입을 막고 제한하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게끔 만든다. 국민들은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국가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에 부합하는 정보만 흡수하고 모순되는 정보는 함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시한다. 이들이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는 편견, 추가, 왜곡을 통해 기존에 가진 사고에 따라 해석되고 인지적으로 처리된다.<sup>49)</sup>

---

49) 이와 같은 정보 처리 과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갈등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신념이 구조, 감정, 맥락, 동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굳어 있기 때문이다. Daniel Bar Tal,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1967년을 기점으로 변화한 갈등 문화는 이후 1970년대 후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가 강화되고 김정일로의 세습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더 제도화되었다. 1967년 이후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후 사회에서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할지 선택할 때 제도화된 갈등 문화에 이질성을 느끼지 못한다. 나아가 이들의 자녀들은 이미 갈등 문화에 익숙해진 기성세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욱 제도화된 갈등 문화가 반영된 공교육을 받기에 갈등 문화를 자연스럽게 답습해 강화한다. 즉, 1967년을 분기점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를 목표로 한 내용을 담은 공교육을 통해 형성된 갈등 문화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더욱 강화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전보다 더 제도화된 갈등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교육 내용 서술의 변화를 추출하여 정치와 교육의 역학 관계를 분석했다. 1967년 이전 시기의 국가 목표는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 건설이었기에 김일성 개인에 대한 초점보다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투쟁하는 노동 계급과 인민에 더 초점이 맞춰서 서술된다. 그러나 1967년 이후 김



일성의 지침을 기반으로 한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로 목표가 변화하면서 같은 제재를 다루더라도 김일성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

변화된 국가 목표에 따라 적과 우리를 상정하는 범위를 변화시켜 국가 정체성을 이전과 다르게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김일성은 유일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1967년 이전 시기 교과서에서는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하는 존재는 모두 우리로 상정하고 ‘맑스-레닌사상’을 반복해 표기하면서 이 시기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위해서 기초하는 사상이 맑스-레닌주의임을 강조한다. 소련, 중국으로 대표되는 같은 사회주의국가에 대해서는 소련은 북한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로, 중국은 함께 협력하는 국가의 존재로 서술한다. 이와 달리 1967년 이후 시기 교과서에서는 이전보다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부각해 적 서술을 강화했고,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를 목표로 투쟁하는 존재는 국가에 상관없이 우리로 상정했던 서술에서 김일성에 충성하는 북한만의 인민들을 우리의 범주로 삼아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국가와 관련하여 소련은 배제하여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월한 존재로서 가르침을 주는 양상으로 서술을 바꿔 이들 또한 우리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더불어 김일성의 부모의 업적에 대한 강조, 김일성 영도의 옳음을 정당화하는 서술, 구원자적 면모를 가진 김일성의 모습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는 북한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 지침에 기반해야 한다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결부되어 당 지침의 방향성과 세부 지침을 항상 옳게 내리는 김일성에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이와 같이 공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된 변화한 국

가 정체성은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 정서를 형성해 갈등 문화를 제도화하여 이후 더 강화된 갈등 문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정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변화시켜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공교육을 받은 국민들은 지속적이고 강화되는 갈등 문화 속에 적응하고 더 제도화된 갈등 문화를 양산하면서 정치에 재 영향을 미치는 역학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부족했던 시기에 대한 교과서, 담화문 등의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화가 있었던 1967년을 기점으로 교육에서의 변화를 증명했고, 교육이 갈등 문화를 재생산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했다는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정치와 교육의 역학 관계 분석은 이후 1970년대 후반, 김정일의 후계 세습,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은의 집권 등 다른 시기들에도 적용하여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하지 못했던 갈등 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북한 교육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인민 학교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이 이뤄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고: 2024.10.12. / 수정: 2024.12.01. / 채택: 2024.12.03.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 강근조, 『조선교육사』 제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김일성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제4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 \_\_\_\_\_,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6~1967).
- 총련중앙교육부, 『국어 독본: 성인학교, 청년학교, 중·고 편입생용』(동경: 학우서방, 1960).
- \_\_\_\_\_, 『국어: 사범대학 예비과용』(동경: 학우서방, 1969).
- \_\_\_\_\_, 『국어: 중급 학교 제 1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71).
- \_\_\_\_\_, 『국어: 중급 학교 제 3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64).
- \_\_\_\_\_, 『국어: 중급학교 제2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64).
- \_\_\_\_\_, 『김일성원수혁명활동: 중급학교 제 2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75).
- \_\_\_\_\_, 『사회: 중급학교 제 2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71).
- \_\_\_\_\_, 『조선 력사: 고급 학교 제 2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64).
- \_\_\_\_\_, 『조선 력사: 중급학교 제 3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70).
- \_\_\_\_\_, 『조선 력사: 초급학교 제 5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70).
- \_\_\_\_\_, 『조선력사: 고급학교 제2·3학년용』(동경: 학우서방, 1967).
- \_\_\_\_\_, 『조선력사: 조청반용』(동경: 학우서방, 1964).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서울: 통일연구원, 2018).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경기: 교육과학사, 2010).

### 2) 논문

권성아, “「조선력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이념교육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방향,”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2011).  
김광식, “재일조선인의 옛이야기 그림책의 활용: 학우서방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75집(2021).  
김옥자, “북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1960년대 후반 기술교육 중심에서 유일사상교육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2015).  
김인덕, “쟁점논단: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역사교재 서술체계에 대한 소고: 『조선력사』(고급3)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학회』, 제14권(2008).  
김재웅, “북한의 역사 교육체계 확립과 민족해방운동사 인식,” 『사총』, 제102권(2021).  
박지광, “2022년 여론조사로 본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 『동유럽발칸연구』, 제46권 3호(2022).  
박찬홍, “『조선력사』(상)(1963) 교과서의 대외관계사 서술 검토,” 『백산학보』, 제119호(2021).  
심희찬, “박시형의 역사관과 발해사 연구에 대해,” 『역사와 교육』, 제34집(2022).  
윤송아, “총련 결성과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박종상의 『봄비』와 량우직의 『서곡』에 나타난 총련 결성 시기 ‘조선학교’의 재현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57권(2019).  
이건만, “문화적 계급지배와 교육불평등-Pierre Bourdieu 문화 재생산이론의 음미,”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2호(2006).

정창현, “北혁명전통의 뿌리 동북항일연군 1960년대 후반 현대사 기점 변화,” 『민족 21』, 제147호(2013).

조수룡, “경합하는 ‘혁명전통’: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와 재구축,” 『사학연구』, 제137호(2020).

차승주, “남북한 교과서의 ‘한국전쟁’ 관련 내용 비교 연구,” 『북한학연구』, 제7권 2호(2011).

하광민,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수령의 형상과 속성연구,” 『통일전략』, 제20권 2호(2020).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2권 1호(2021)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BarTal, D.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BarTal, D.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in Mauro Galluccio(ed.), *Handbook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2015).

## The Relation of North Korea's Monolithic Ruling System Formation and Education

Kim, Seogy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 of politics and education during the formation of Kim Il-sung's monolithic ruling system around 1967. In the pre-1967 period, with the goal of realizing an ideal socialist state, North Korea formed a national identity that considered all those who struggled for North Korea as "us" and the imperialist countries they were fighting against as "enemies." However, since the post-1967 period, the state has changed its goal to the formation of a socialist state of its own, thus the national identity was changed in such a way that only the people loyal to Kim Il-sung make up the "we" while continuing to reinforce the narrative of imperialist states as the "enemy." The altered national identity was reflected in textbook narratives, reinforcing cultures of conflict by shaping the collective memories, social beliefs, and collective sentiments of those who received public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national identity that changed for the monolithic ruling system was

reflected in education, and education served as a way to reinforce and reproduce the culture of conflict so that Kim Il-sung's monolithic ruling system could be accepted without any conspicuous difference.

Keywords: 1967, Kim Il Sung, monolithic ruling system, Korean language textbook, social/history textbook, national identity, culture of conflict